

주간 증시 포커스

美 19일~20일 FOMC 회의 주목

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강세 전망

전기차관련주 상승 흐름 이어질 듯

9월3일 6차 핵심현과 14일 화상-12형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미국의 군사적 제재가능성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며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최근 국내증시는 주도주의 상승 흐름이 강화되며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SK하이닉스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반도체관련주의 상승을 견인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등 디젤 자동차를 대표하는 독일 대표브랜드들이 전기차에 집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기차 관련주가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전기차와 수소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모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신고가를 기록하며 신약개발 등 재료보유 바이오헬스케어주에도 시장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북리스크보다는 사드배치에 발발하는 중국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관광객 감소로 면세점 및 화장품 대표기업의 실적악화에 이어 현대자동차 중국공장 일시 가동중단과 롯데마트 중국매장의 매각이 진행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며 중국관련주에 대해 문의하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사드문제에 대한 경제적 대응은 시장의 예측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핵을 자렛대포 삼아 미국과 지속적인 줄타기가 예상되며 지난주 언급됐듯이 사드배치를 문제삼아 자국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한국기업을 압박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중국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하락폭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손절매보다는 반등을 이용한 시장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주 19~20일 예정된 9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분기 시장흐름이 결정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연준위원의 매파적 발언에도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금리인상 여부보다는 4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연준 보유자산의 축소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 몇 차례 언급됐듯이 FOMC의 보유자산축소는 지금까지 시장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Fed(미국 중앙은행제도)가 이미 밝힌 계획에 따르면 자산 축소 규모는 100억달러로 시작해서 3개월마다 100억 달러씩 늘리고 500억달러가 되면 유지하는 것이다. 시장에 우려가 있지만 이미 예상되고 있었던 자산규모 축소 결정과 함께 향후 기준금리인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9월 FOMC회의, 10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 등을 거치면서 코스피지수 25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IT 업종은 4분기 갈수록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확대에 따라 배터리 및 자동차부품 등 전기차관련주의 순환매적 상승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이오시밀러 대표기업과 신약기대감으로 재료보유 바이오헬스케어 관련주의 시장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조정을 보인 은행, 증권, 건설업종 등은 정부정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나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자동차, 화장품 등은 펀더멘털이 개선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추석 농축산물 선물세트·제수용품 20% 싸게 팔아요

광주농협, 다음달 1일까지 10곳 직거래 장터

지역 농산물 가공 '농업인 생산기업 제품' 확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가 추석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 장터'를 연다. 광주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다, 농업인 생산기업 제품들도 대거 선보여질 예정이어서 명절 선물 구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 광주 본부는 지난 12일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까지 광주지역 10곳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리는 추석맞이 농협 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추석 제수용품이 판매될 계획이다. 유통단체를 대폭 축소한 직거래여서 시중가

비해 최고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명절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직거래장터에는 배와 사과, 포도, 한우 등 대표적인 명절시즌 선물세트부터 무등산 벌꿀, 무등산 수박 등 지역 특산물이 판매된다.

햄살과 잡곡, 양송이, 고추, 피망 등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이 준비돼 있어 추석명절 제수용품들도 한번에 마련할 수 있는 자리다.

다음달 1일까지 장터가 운영되는 곳은 ▲광주농협 하나로마트 매곡점 ▲비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서광주농협 하나로마트 동림점 ▲송정농협 경제사업장 ▲평동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시청 현관(로컬푸드 매장) 등 7곳이다.

■ 광주농협 추석 직거래장터

기간	위치(개장장소)
10월1일까지	광주농협 하나로마트 매곡점
	비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서광주농협 하나로마트 동림점
	송정농협 경제사업장
	평동농협 하나로마트
9월22일	광주시청 현관(로컬푸드 매장)
9월26일	광주지방경찰청 주차장
매주 금요일	송정매일시장 입구(금요일직거래장터)

광주지방경찰청 현관과 광주지방경찰청 주차장에서도 각각 오는 22일과 26일 하루 동안 특별 장터가 개장되며,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입구에서 열리는 '금요일직거래장터'에서도 추석 전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추석명절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판매한다.

특히, 올해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업인 본인이 직접 가공해 만든 '농업인 생산기업 제품'들이 예년 보다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단호박 한과 정다움'(1kg·4만5000원)을 비롯한 '짜 먹는 배·도라지정'(2만8900원), '하늘 연 표고버섯 세트'(3만9000원), '3년근 도라지즙'(4만6000원), '애플빌 사과즙'(3만5000원) 등 총 20개 품목이 판매될 예정이다.

여기에 행사카드(NH농협카드·NH농협비씨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로 결제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인 1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박태선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올해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서는 신선하고 품질이 뛰어난 지역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의 유통단체를 축소했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니 믿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T, Mumbai식품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우리 농식품의 인도 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인도 Mumbai 현지에서 열린 '2017 Mumbai식품박람회'(World of Food India)에 참가했다. <aT 제공>



전남농협, 식품안전·원산지표시 점검

소비자에 안전 먹거리 제공

'식품안전 특별상황실' 운영

하나로마트 등 300여개 대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추석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식품안전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섰다. 17일 밝혔다.

식품안전 점검 대상은 전남지역 300여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축산물판매장 등이다.

전남농협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지역 농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명절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까지 '17년 추석 대비 식품안전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명절 성수품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경과여부, 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흥목 본부장은 "모든 판매장에 대해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 추석에도 식품안전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추석 선물은 농협 판매장에서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진청, 한우 고기 양 늘리는 유전자 확인

국내 연구진이 한우고기의 육량 개선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가축 성장 유전자 가운데 하나인 '마이오스타틴'(Myostatin) 유전자가 한우의 고기 양을 늘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우는 마블링(결지방)이라 불리는 근육 내 지방이 우수한 품종이다. 1990년대 이후 육질 우수 개량으로 육질 등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육량 등급은 줄고 있다.

마이오스타틴 유전자는 가축 성장에 영향을 주는 8개 유전자(GDF-8) 중 하나로 골격근 발달에 영향을 미쳐 근육량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마이오스타틴이 실제 한우에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유전자형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우 1050마리를 대상으로 육량 관련 성적과 유전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 두께에 영향을 주는 3개 유전 식별표지를 찾아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나주,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주인직매 010-3605-5000